



사운드의 흥분 지수를 높인다

DYNAUDIO EXCITE

Dynaudio의 Audience는 본지가 추천하는 강력한 중급 스피커 제품군이자 멋진 덴마크 스피커 회사의 제품을 맛보게 해주는 안내 가이드와 같은 제품이다. 우리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이 제품에 여유 있게 별 다섯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3~4년 전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들 엔트리의 특별판인 Audience special edition 인데 전체 시리즈 중 두 제품을 엄선하여 52SE, 72SE를 끝으로 별 다른 변화의 소식은 없었다. 대신 Dynaudio의 최신 소식에는 이달 Hiend scope에 소개된 30주년 기념작 같은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았다.

이제 그 긴 목마름 끝에 Dynaudio의 엔트리급에 좀더 살이 붙은 새로운 시리즈가 울여름 데뷔한다. 흥분되는 소식 아닌가? 덕분에 제품명도 Excite이다. Audience SE 이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즐겨보기 힘들었던 Dynaudio에 비슷한 등급의 새 시리즈라니 몹시 기대가 된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Excite 시리즈의 등급이다. 여전히 Dynaudio의 엔트리 모델은 Audience 시리즈이다. 이는 변함이 없다. Excite는 Audience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몇 백만원대로 훌쩍 올라가는 Focus 시리즈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두 제품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동이 쉬워진 신실계 드라이버

Excite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Dynaudio가 새로 개발한 최신 드라이버로 만든 첫 스피커 시리즈라는 점이다. 유명한 트위터와 우퍼를 두고 신형 드라이버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과 대중성이다. 통상적으로 Dynaudio의 드라이버와 스피커들은 좋은 음에 비해 구동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대로 울리면 환상적이지만 스피커보다 훨씬 비싼 앰프에서만 제 소리를 들려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좀더 대중적인 가격대의 인터 앰프나 멀티채널 리시버 같은 앰프들에서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신형 드라이버는 이러한 기존 드라이버의 약점을 완전히 해소하여 Dynaudio의 켈리티 퍼포먼스를 좀더 쉬운 앰프들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유닛들이다.

두 배 이상 강력해진 마그넷

먼저 이 시리즈에 사용된 우퍼들이다. 이들은 기존 우퍼와 같은 마그네슘과 실리콘 소재를 섞어 만든 MSP를 콘지로 사용한다. 하지만 대구경의 보이스코일로 드라이버를 구동했던 트레이드마크를 버리고 거의 반 가까운 수준으로 좁아진 소구경 보이스코일을 사용한다. 대신 자력의 강도가 훨씬 강력한 대형 마그넷을 도입했다. 이는 우퍼나 미드베이스가 움직이기 위한 전류량이 이전 드라이버들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즉, 이전보다 적은 출력으로도 같은 크기의 음량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이스코일의 구경은 좁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콘지가 움직이는 진폭은 이전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DYNAUDIO EXCITE SERIES BRAND NEW



보이스코일의 소재는 기존 유닛들과 동일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유닛을 지탱하는 프레임도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여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장착이 쉬운 형태로 완성했다. 덕분에 재생 대역에서의 잡공진 발생 확률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한다.

소구경 보이스코일의 사용은 콘지 전면의 디자인도 바꾸어 놓았다. 기존 Dynaudio의 미드 베이스 드라이버들은 한 장의 콘지를 사용하며 전체를 커버하는 형태를 사용했는데 이는 보이스코일의 직경이 크기 때문이다. 보이스코일이 콘지를 움직이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지의 움직임이 훨씬 더 정확하고 견고하다. 하지만 소구경 보이스코일을 쓰면 콘지 중앙 부위만 움직이게 되어 뒤틀림이 발생할 확률 높고 센터캡과 콘지를 붙이는 이중 콘지fmf 사용해야 한다. Dynaudio는 이런 약점이 있어도 소구경 보이스코일로 설계하고 대신 동일한 소재로 콘지와 센터캡을 만든 다음 아주 높은 정밀도의 설계와 제작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싱글 콘지때와 똑같은 수준의 동작 특성을 갖는 드라이버로 완성했다. 덕분에 뒤틀림이나 불필요한 공진이 발생할 소지를 줄였다. 사진을 보면 중앙에 센터캡 형태의 소재가 추가된 2피스 구조의 드라이버임을 알 수 있다.

훨씬 구동이 쉽게 설계된 유닛이라는 것은 스펙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새 드라이버를 쓴 Excite의 모든 제품의 임피던스는 최소 4ohm 이상이다. 일부는 6ohm 이상의 모델도 있다.

트위터도 새로 설계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Dynaudio의 전매 특허 디자인과 똑같지만 새로운 트위터는 실크 소재에 코팅을 입히는 방법이나 소재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덕분에

에 훨씬 평탄하고 매끄러운 대역 특성을 갖는 스펙으로 완성되었다.

북셀프에서 플로어스탠더까지

Excite 시리즈의 모델들은 총 다섯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먼저 북셀프 모델인 X12, X16이 있으며 플로어스탠더로 X32, X36이 있다. 이와 함께 홈시네마 및 멀티채널 시스템 구성을 위한 센터 스피커 X22가 추가된다.

전 제품 모두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으로 덕트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스피너로 저역을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트위터와 우퍼가 장착되는 전면 배플은 25mm 두께의 저공진의 MDF 보드를 사용하여 최대한 정확한 드라이버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마감 또한 모두 Dynaudio 퀄리티를 자랑하는 원목 마감으로 메이플, 체리, 로즈우드 그리고 블랙 애시 등의 4가지 마감이 제공된다.

Excite 시리즈는 이달 중순부터 국내 시장에 발매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9월호에서 Audience를 능가하는 새로운 Excite 시리즈의 흥분 정도를 테스트하게 될 예정이다. 기대하시라.



■ SPECIFICATIONS

	Excite X36	Excite X32	Excite X22 Center	Excite X16	Excite X12
Sensitivity	89 dB (2.83 V/1 m)	87 dB (2.83 V/1 m)	86 dB (2.83 V/1 m)	87 dB (2.83 V/1 m)	86 dB (2.83 V/1 m)
IEC Power handling	250 W	200 W	150 W	150 W	150 W
Impedance	4 ohms				
Frequency Response	35 Hz–23 kHz (± 3 dB)	37 Hz–23 kHz (± 3 dB)	58 Hz–23 kHz (± 3 dB)	40 Hz–23 kHz (± 3 dB)	50 Hz–23 kHz (± 3 dB)
Box Principle	3-way bass reflex	2-way bass reflex	2-way bass reflex	2-way bass reflex	2-way bass reflex
Crossover Frequency	500 & 2000 Hz	1800 Hz	1800 Hz	1800 Hz	2000 Hz
Weight	23.5 kg	17.2 kg	7.0 kg	9.0 kg	6.5 kg
Dimensions (W x H x D)	205 x 1040 x 310 mm	170 x 920 x 270 mm	500 x 130 x 210 mm	205 x 350 x 290 mm	170 x 285 x 255 mm

